

'94 목재수급계획량 9,319천m³로 확정

산림청은 올해의 원목수급계획량을 9,319천m³로 확정하고 이 중 88%인 8,185천m³을 외국으로부터 도입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94년도 총목재수요량을 9,319천m³로 확정하고 이중 12%인 1,134천m³를 국내재로 공급하고 나머지 88%인 8,185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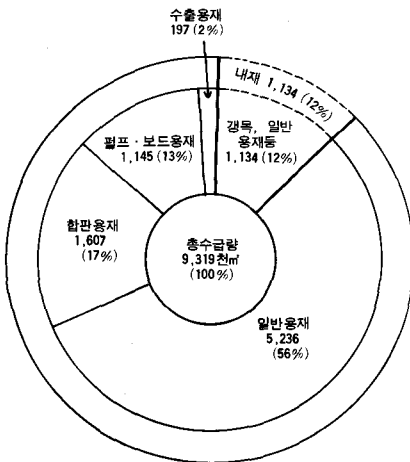
m³는 외재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30년생이하의 어린나무가 전체 산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목재자급율은 10%내외에 불과하므로 외재도입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전후하여 해외원목 도입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목재자원국들은 자국의 목재산업육성을 위한 벌채량감소, 원목수출규제강화등으로 우리나라의 원목도입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산림청은 앞으로 외재도입 여건악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절벌정책을 유지하되, 간벌소경목의 새로운 용도개발과 피해목 및 불량목의 수종갱신 벌채로 일정규모는 국내목재로 공급해 나가면서 외재도입선 다변화와 특히, 해외조림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육성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4 용도별 목재수급량



임야매매증명 발급기준 대폭완화조치

산림청은 임야매매시 필요한 임야매매증명 발급기준을 현행 2,000m² (약 600평) 이상에서 10,000m² (약 3,000평) 이상으로 대

폭 완화하여 '9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야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90. 7. 14부터 임야거래시 2,000m² 미

만은 임야매매증명 없이는 일체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왔으나, 그동안 전국적으로 임야를 비롯한 전반적인 부동산거래가 안정 내지 하향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소규모 산림경영을 위한 산주들의 불만

을 해소하고 임야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10,000㎡미만의 임야거래시는 임야매매증명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94 임산물 수출진흥 시책

산림청은 '94년도 임산물 수출목표를 620백만\$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자금지원강화, 생산기반확충, 통상협력강화 등 수출진흥시책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산림청은 내년도의 임산물 수출환경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

지만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타결로 일본을 비롯한 수출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94년 임산물 수출목표를 합판, 목재, 목제품 등 목재류 120백만\$, 석재류 260백만\$, 밤·송이·표고 등 부산물 240백만\$로 설정하였다.

대규모 국유림경영시범단지 조성키로

산림청은 강원도 평창군에 2,000ha의 대규모 국유림경영시범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94부터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총 산림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130만ha의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이고 다목적경영을 위한 “새로운 산림자원육성 모델” 개발을 목표로 우선 평창군에 대규모 국유림경영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에 평창지역에 조성하는 국유림 경

영시범단지의 주요사업내용은,

- 생산비절감을 위한 벌목, 집재, 운재작업의 기계화시범사업
- 산채, 약초, 분재, 야생화, 야생동물방사 등 다목적 경영시범
- 천연림과 인공림에 대한 보속생산 모델 개발
- 임업생산성 향상과 보속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국유림경영관리제도의 개선 모델 개발등이다.

이 시범사업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그린라운드로 연결되는 요즈음 리우환경회의에서 주요 의제였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산림에서의 실천방안의 하나인 보속생산체계의 개발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효과는 앞으로 국유

림의 보속 생산과 기계화에 의한 각종 생산비 절감으로 국내 임업의 경쟁력강화는 물론, 산주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사업이 성공되면 이러한 시범단지를 전국 권역별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훼손 기준 대폭 강화

-산림청 훼손지 일제조사, 관계공무원 272명 문책-

산림청이 최근 산림이 타용도로 개발되므로 국토경관이 저해되고 재해의 우려가 있어 전국 산림훼손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에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93. 11. 30 현재 전국의 산림훼손 규모는 총 8,188건에 25,507ha이며,

① 광산개발이 1,511건에 5,361ha, ② 토석채취가 1,389건에 3,530ha, ③ 체육시설이 160건에 6,152ha, ④ 공장·택지·농축용지가 5,128건에 10,464ha로 조사되

었으며 이 중 경기도가 5,430ha로서 1위, 강원 3,289ha, 충북 2,866ha순으로 나타났다.

〈類型別 內譯〉

區分	件數	%	面積	%	復舊費概算	%
	件		ha	100	億圓	
合計	8,188	100	25,507	100	4,310	100
鑛山開發	1,511	18	5,361	21	1,445	33
土石採取	1,389	17	3,530	14	1,108	26
體育施設	160	2	6,152	24	832	19
施設用地	5,128	63	10,464	41	925	22

대추나무의 신규식재 억제 권장

산림청에 따르면 대추나무 식재비에 따라 재배본수가 증가하고, 앞으로 관세 및 무

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졸업에 따른 대추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제

경쟁력 약화로 재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향후 대추나무의 대량식재는 억제토록 권장하고 있다.

산림청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86년부터 대추나무 식재가 확대되어 '92년말 현재 총 재배본수는 3,877천본으로서 지난 '87년 1,219천본에 비하여 무려 3배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대추 생산량도 '85년도 3,774톤에서 '92년에는 11,216톤으로 약 3배나 증가 하였고 국제 가격도 kg당 970원인데 반해 국내 가격은 kg당 7,415원으로서 무려 7.6배나

되는 등 여러가지로 불리한 여건에 있다.

또한 대추나무 식재본수의 42%가 어린 나무로 앞으로 대추생산량은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며 '97년이후 수입개방시는 국내 대추생산 농가(124,964호)는 큰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앞으로 대추나무 묘목 생산량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농촌진흥청 및 각 시·도에 통보하여 향후 대추나무의 대규모 신규재배는 가급적 억제 해줄것을 권장하고 있다.

임업기계훈련원을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관리

산림청은 1982년부터 우리나라와 독일정부간 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한·독산림경영사업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임업기계훈련원에서 담당해온 훈련사업을 '94년 1월 1일부터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밝힌 한·독산림경영사업의 주요성과를 보면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에 임업기계훈련원을 설치하고, 임업기능인 5,886명을 양성 배출했으며 산림기계장비 27종개발, 시범임도시설 121km, 목재집재기계화시범사업 17,884m², 우리나라 산림공무원 173명에 대한 선진 독일임업훈련과 시찰을 시키는

등 큰 성과를 보았다.

또한 그동안 이 훈련원에서 선진임업기술을 이수한 많은 기능인들이 전국 산림사업 현장에서 이론과 실기를 전수하는등 우리임업의 당면사항인 임업노동력 향상과 생산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우리임업의 선진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진임업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94. 1. 1부터 임업기계훈련원에서 종사하던 직원 32명 전원과 훈련원시설 및 장비일체를 새로 발족되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각종 훈련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94 주요산림시책방향

1. 산지이용체계의 재편추진

현재의 보전임지, 준보전임지의 산지이용구조를 다양한 국민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산임지, 공익임지, 산업임지로 재편추진.

- 임지의 관리방향은 생산임지는 임업생산을 주기능으로 하고 공익임지는 환경증진, 산업임지는 산업용지로 공급하고자 하며
- 이를 위하여 산지이용구분 조사 실시 및 산지기본도 작성함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체계의 확립

30년생이하의 어린나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림기술을 적용, 경제적·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

- 생산임지는 수종갱신조림 중점 추진 단위 목재생산기지로 육성
- 공익임지는 천연갱신과 복층림 조성위주로 실행 환경보전기능으로 육성
- 산업임지는 유실수, 속성수, 조경수 집중 재배로 단기소득증대 유도
 - 다양한 간벌방법 적용으로 경제성을 제고시키고
- 조림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올려 산주부담(20%→10%) 경감

3 경영영기반의 확충 및 경제임업 추진

산림기본계획, 영림계획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임도시설의 확충, 임업기계화촉진 임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기능인 작업단

양성과 목재가공산업의 시설 현대화와 유통구조개선으로 경제성 있는 임업으로 육성 사유림 협업경영 확대 및 독립가와 임업후계자의 적극 육성

4. 환경임업의 육성

리우환경개발회의 이후 세계적인 환경보전 추세에 따라 환경림을 적극 육성

- 도시 공단지역 및 도시생활권주변에 환경조림 사업 실시
-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확대 조성
- 풍치 보안림 확대 지정
- 고산지대 복원조림 및 서식환경 조성
- 대기오염으로 인한 토양산성화와 산림쇠퇴방지책 연구

5. 해외조림개발 확대추진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산림개발 적극 추진

- 구매도입에서 육성도입으로 전환
- 해외조림 적극 진출(호주, 베트남 등)
- 해외조림 투자유도를 위한 사업비 용자
- 정부주도로 해외산림개발 현지, 타당성 조사 실시

6. 산림개발자금 확대지원

산주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저리 산림개발자금 확대지원

- 산림개발기금 200억원 연리 3%, 농어촌발전기금 349억원 5~8%,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405억원 5% 등 총 989억원 지원

임목을 덮는 칩덩굴 제거 대책시달

산림청에서는 임목생장에 큰 피해를 주고 조림목을 덮어 고사케 하는 칩을 제거하기 위해 전국의 칩분포 상황을 일제조사하여 제거대책을 수립 각시·도, 영림서에 시달하였다.

칩은 맹아와 덩굴에 의한 번식력이 강하여 사방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 수목에 많은 피해를 주고, 특히 숲이 우거지지 않은 인공조림지에 주로 번성하여 조림목을 덮어 고사케 함으로서 조림실패 원인이 되고있다.

임목생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칩덩굴 분포상황을 일제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11천ha에 칩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중 임목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면적 72천ha에 생육하고 있는 63백만본을 '94~'97까지 4개

년동안에 완전제거할 계획으로 칩덩굴 제거대책을 수립 각시·도, 영림서에 시달하였다.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칩을 캐어나거나 근사미를 이용 제거하였으나 고사효과가 높은 디카바(반벨) 액제에 의한 제거작업으로 방법을 개선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한편,

작업후 다시 살아나거나 약제처리시 누락본수가 생기게 되므로 1회작업으로는 완전제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듬해에 보완작업을 실행 완전제거토록 하고,

또한 칩차등 가공식품업체에서 칩(뿌리)을 적극적으로 캐어 이용토록 권장하고 칩가공시설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제주 한라수목원 개장

산림청은 산림문화창달과 대국민 자연학습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87. 4. 8광릉수목원 개장에 이어 지방수목원으로 제주 한라수목원이 착공 6년만에 '93. 12. 20, 10:00 개장식을 갖고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제주 한라수목원은 '86~'93년까지 지방비 및 국고 약 28억원을 투입 제주시 연동소재 부지 14.4ha에 수목원과 산림욕장, 전시실, 온실, 시청각실 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수목원에 전시된 수목종류는 총 804종에 62,958본으로 난대, 아열대식물등 제주지역 고유수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남국의 정취를 더욱 자아내고 있다.

이밖에도 자연관찰로 1.1km, 잔디광장 3,000㎡, 순환로 1.1km와 파고라, 벤취, 주차장등 부대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외 관광객유치는 물론 지역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3년산(1994년 조림사업용)묘목 가격 결정고시

산림청은 올해 산림사업용 묘목 26개 수종 41종류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 고시하였는데 전년대비 평균 인상율은 8.4%이다. 수종별 가격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3년도산 산림용 묘목(성묘)가격

(천원/천본)

수종	묘령	'93산가격	비고
강 송 잣 나무	1-1	83,000	
	2-1	145,000	
	2-2	152,000	
	2-3	236,000	
낙엽 송 삼 나무 편 백	2-2-3	1,235,000	○“분”뜨기 묘목
	1-1	131,000	
	1-1	148,000	
	1-1	156,000	
화 백 해 송	1-1-1	228,000	○“분”뜨기 묘목
	1-2-2	1,106,000	
	1-1	149,000	
	1-1	80,000	
리 기 다	1-1-2	923,000	○“분”뜨기 묘목
	1-0	42,000	
	1-1	74,000	
리 기 테 다	1-1-2	932,000	○“분”뜨기 묘목
	1-0	38,000	
	1-1	74,000	
스트로브잣나무	1-2	118,000	○“분”뜨기 묘목
	2-2-3	1,347,000	
버지니아소나무	1-1	79,000	
상수리 나무	1-0	105,000	

수종	묘령	'93산가격	비고
자작 나무	1-0	116,000	
	1-1	235,000	
물푸레 나무	1-0	85,000	
	1-1	196,000	
느티 나무	1-0	124,000	
	1-1	239,000	
루브라참나무	1-0	84,000	
젓 나무	2-2	157,000	
	2-3	212,000	
두층 나무	1-0	153,000	
독일가문비나무	2-2-2	1,182,000	○“분”뜨기 묘목
이태리 P	c1/1	394,000	
양황철 나무	c1/1	394,000	
수원포플러	c1/1	394,000	
오동 나무	치상묘	343,000	
밤 나무	저 접	466,000	
	고 접	757,000	
아까시 나무	1-0	74,000	
오리 나무	1-0	105,000	

※ 부대조건

- 본 묘목은 검사합격율 95% 이상의 묘목(불합격 5%미만 포함)에 대한 기준가격이고 대표는 검사합격율 100%기준 가격임.
-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의 해당액의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분”뜨기 묘목은 새끼뭉기와 비닐싸매기)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 서 인도하는 가격임.
- 단, 분뜨기 묘목은 상차인도가격임.